



빛속 공 다툼 25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광주 김수범이 제주 골키퍼 김호준과 빛속에서 공을 다투고 있다. (광주 FC 제공)

광주 FC 13위로 전반기 마감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 제주에 1-2 아쉬운 패배

신생팀 광주 FC가 13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광주 FC는 25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2011 15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인저리타임에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사냥에 실패하면서 광주는 3단계 하락한 13위(5승3무7패·승점 18)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태풍 '메이리'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수중전이 전개됐다. 공을 컨트롤 하기도 어려운 악조건속에서 극적인 승부가 연출됐다. 광주는 골키퍼 박호진의 잇단 선방으로 제주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으며 전반전을 0-0으로 마쳤다. 후반 9분 제주의 외국인 선수 산토스의 헤딩골이 터졌다. 기동력으로 광주 골문을 위

협했던 산토스가 문전혼전상황에서 백헤딩으로 선제골을 가져갔다. 165cm 단신 산토스의 기습 헤딩골이었다. 후반 광주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광주의 공격수 박기동과 이승기가 때때로 슈팅을 날리며 제주의 수비를 흔들었다. 후반 30분에는 중앙파울로가 킥을 하면서 날린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비껴났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곧바로 중앙파울로를 191cm의 유동민으로 교체하면서 제공권을 강화했다. 교체카드는 성공적이었다. 전광판 시계가 후반 45분을 가리키는 순간 유동민이 김수범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슛을 날리며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렸다. 유동민의 한방에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1분이 아쉬웠다. 후반 인저리 타임에 박현범의 스투페스를 받은 제주 배기종이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박호진이 몸을 날렸지만 손끝을 비껴나면서 경기는 1-2패로 끝났다. 최만희 감독은 "제주가 패스가 좋은 팀인데 준비한대로 잘 상대해서 많은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세트 플레이에서 사람을 놓치며 경기를 내줬다"며 "많은 비가 와서 어려운 경기였다. 지기는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해준 선수들이 고맙다"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 감독은 또 "홈에서는 좋은 경기, 원정에서는 상대팀에게 위협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전반기를 운영했다. 목표했던 승점 20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젊은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다"며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여유와 능력이 부족하지만 준비 잘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2라운드를 맞이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내달 2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제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심배 골프 김대한·김효주 우승

남녀 223명 출전 열전 4일

제9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가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 광주시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화순 클럽 900에서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4라운드 경기로 치러진 대회에는 남자부 127명, 여자부 96명 등 총 223명이 출전해 우승을 다투었다. 남자부에서는 김대한(경기 신성고 3년)이 16년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김효주(서울 대원외고 1년)가 14년더파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4일 클럽 900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남·여부 각 5위까지 시상이 진행됐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또 1~3위 입상자가 광주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2년간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5위에게는 1년간 등록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는 광주대학교 동문인 최경주의 PGA투어 우승을 기념하고,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



24일 화순 클럽 900에서 열린 호심배골프대회 시상식에서 남자부 입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1위 김대한(신성고), 2위 이승택(경기고), 김혁중 광주대 총장, 3위 김시우(육민관고). (광주대 제공)

남 2003년 광주대학교 창설자 故 호심 김인수 육성 무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호남권 유일의 아마추어 메이저대회로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희영 선두와 7타 차 4위

LPGA 챔피언십 3R ... 청야니 우승 예약·신지에 54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인 청야니(대만)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사흘째 선두를 지켰다. 청야니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 합계 13언더파 203타가 된 청야니는 8언더파 208타로 공동 2위로 올라선 신디라 크로스(미국)와 모건 프레셀(미국)을 5타 차로 앞서 시즌 3승째 달성해 바짝 다가섰다. 박희영(24·하나금융그룹)은 중간합계 6

언더파 210타를 기록, 단독 4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전날 프레셀과 공동 3위였던 박희영은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이븐파에 그쳐 선두인 청야니와의 격차가 7타로 벌어져 역전 우승에 난항을 겪게 됐다. 전날 공동 10위였던 이미나(30·KT)는 2타를 풀어 중간합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5위로 뛰어올랐고 김민경(하나금융·4언더파 212타)도 공동 29위에서 공동 9위가 됐다. 그러나 힘겹게 컷을 통과한 신지에(23·미래에셋)는 버디 2개에 보기는 3개나 범해 1오버파 73타를 적어내면서 중간합계 3오버파 219타로 공동 54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박희영이 LPGA 웨그먼스 챔피언십 3라운드 경기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놓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남 시즌 첫 우승컵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강경남(28·우리투자증권)이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총상금 3억원)에서 8개월 만에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강경남은 26일 강원도 횡성군 오스타 골프장 남코스(파72·7천27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 경기에서 강풍과 빗줄기가 쏟아진 악조건을 뚫고 버디 5개에 보기 4개를 합쳐 1언더파 71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강경남

은 이날 4타를 잃고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에 그친 2위 이동민(26)을 6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작년 10월 명성웨어 챔피언십 이후 우승하지 못한 강경남은 상금 6000만원을 챙기면서 통산 일곱 번째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편 첫날 단독 선두였던 최호성(38)은 이날 1오버파 73타에 그쳐 최종합계 3오버파 291타로 3위를 차지했다. 임재웅(5오버파 293타)과 '장타자' 김대현(하이트·7오버파 295타)은 각각 4,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JNJ골프리조트 18홀 공사 마무리 단계 10월 시범라운딩 목표 ... 창립회원 모집

정남진골프리조트(주)가 장흥군 장평면에 건설 중인 JNJ골프리조트의 27홀 중 18홀 조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는 10월 시범라운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남진골프리조트(주)는 지난 2월부터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인원 2만4000명이 투입되었고, 주요 중장비 8000여대가 동원돼 작업이 한창이다. 3월부터 조형공사를 진행해온 JNJ골프리조트는 5월부터 법면과 페어웨이, 그린 등에 씨딩(잔디파종) 작업을 실시해 작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씨딩 작업이 끝나면 오는 11월 정식 개장시까지 잔디 관리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JNJ골프리조트 관계자는 "개활형 구릉지여서 통풍이 좋고 평지보다 기온도 낮아 현재 식재중인 양잔디 품종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지형이다"며 "오는 10월 광주·전남권역에 양잔디 명



문 골프장이 탄생할 것이다. 회원들을 맞이하게 될 클럽 하우스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창립회원 모집도 계속된다. 회비는 계좌당 일반회원 5000만원(일시납 4500만원), 법인회원 1억원(일시납 9000만원)이며 1차 창립회원에게는 제주 라벤스CC의 제휴회원 대우로 한 장의 회원권으로 2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61)864-909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Golf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리즈골프(Liz Golf) 프라이머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회원자격	골프서비스	숙박서비스	모집인원
프라이머 호남VIP	15,2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무기명-3인	주중8회, 주말4회/월 (월12회 / 년108회)	27평형대 년 60박	9명
플래티늄	6,40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주중3회, 주말1회/월 (월4회 / 년39회)	27평형대 년 15박	32명
프라이머	3,800만원			기 명-1인	주중2회, 주말1회/월 (월3회 / 년27회)	25평형대 년 15박	

프라이머 호남 VIP란?

- ▶ 광주/전남 법인회원을 위해 리즈골프 호남지사만의 단독상품으로 법인 Business용 Golf Membership 회원권입니다.

기타 회원혜택

-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 골프투어시 제주 골프장 연 15박 회원대우)
- ▶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자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